

다산포럼

새해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김 태 희
다산연구소장

지난해 말 취업 포털들의 신조어 소개가 흥미롭다. ‘직딩이’(직장인)들의 고단한 ‘직장살이’를 엿볼 수 있다. ‘다사다망’(多事多忙)!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오늘 제 때 퇴근할 수 있을까? 답변은 ‘아근각’. ‘아마 아근하게 될 것 같다’는 뜻이다. 휴식을 포기한 족속이며(집포족), 땅에 묶인 혼령처럼 사무실을 떠나지 못한다(사무실 지박령(地縛靈)). 회사에서 가족처럼 지낸다(사족). 정말 시간이 없다(타임푸어), time poor). ‘과로사[死]회’다. 그런데 돈도 없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대로 카드 빚 정산과 세금으로 빠져나가기니(월급 로그아웃), 순식간에 텅 빈 통장(탕장)이 되고 만다. 일하기 싫다(일하

기 싫어[싫어]증). 상사에게 시달려 스트레스다(‘상사병’, 上司病). 퇴근해도 끝은 아니다. SNS를 통해 상사의 업무 지시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든다. ‘메신저 감옥’에서 빠져 나갈 수 없다. 그냥 ‘네’도 아닌 ‘넵!’이라고 반사적으로 답변하게 된다. ‘넵병’이다. 상사라고 불만이 없지 않다. 무슨 일을 시키면 온갖 질문만 해대는 직원(‘물음표 살인마’), 묻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직원(‘뽕뽕뽕 살인마’)에 화가 난다. 그래도 직장인은 다행이다. 구직자(취준생)는 입사 지원서를 이곳저곳 열심히 내지만, 빛의 속도로 탈락하여(‘광탈’), 멘털이 찢어진다(‘멘췌’). 면접에 가서도 병풍처럼 둘러리만 사고(‘병풍’), 탈락의 쓰라림을 마치 재미있는 오락하듯 겪는다(‘탈락썰’). 그러다 보면, 어느덧 장기 미취업족(‘장미취’)이 된다. 그들에게 세상은 ‘고목사회’(枯木死灰)다. 이제 직장은 평생직장이 아니다. 저임금으로 직장에 젊음을 바치고, 나이 먹어 연공서열로 보상받던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한다. 40대에겐 조기 퇴직 후 제2의 직장을 찾는 ‘반퇴 세대’가 화두다. 모두 ‘각자 도생’(各自圖生)을 꿈꾼다. 총동적으로 사

표를 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회사로 옮기기 위해 현재의 직장에서 착실하게 퇴사를 준비한다. 바로 ‘퇴준생’이다. 취업 준비의 ‘취준생’에 비견된다. ‘워라벨 세대’의 대두는 자연스러운 반발 현상이다. 워라벨(Work-Life Balance, WLB)이란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최근에 더욱 주목받는 이 단어는 1970년대 말에 영국에서 등장했다고 한다. 처음엔 일하는 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문제였는데, 그 의미가 점점 확장되었다. 이를 위한 근무시간 자율제(flexi-time), 보육 지원 등이 각국에서 시행되었다. 북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국가의 복지 정책 차원으로 시행되었고,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기업에서 인제 확보 차원으로 시행되었다. 일본에서는 2000년 이후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뒤따르고 있다. OECD의 ‘Better Life Index’에 나오는 ‘Work-Life Balance’ 항목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아주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 혁신 10대 제안’

캠페인으로, ‘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이젤 마쉬(Nigel Marsh)는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테드(TED) 강연(‘How to make work-life balance work’, 2010년 5월)에서 강조했다. 첫째, 정부나 기업의 여러 프로그램(근무시간 자율 선택제, 금요일 캐주얼 복장 출근, 남성의 육아휴가 등이) 아주 피상적인 것일 수 있다. 둘째, 이 문제는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책임질 각자에게 달려 있다. 셋째, 균형을 판단할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도 비현실적이고 은퇴 후까지 잡으면 너무 늦다. 넷째, 균형이란 것이 직장 끝나고 헬스장에 등록하는 때위나 특별한 그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낸 경험을 소개했다. 평범한 일상에 소중한 삶이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연을 마무리했다. “제 요점은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일 아니다. 좀 더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극적인 대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맞은 곳에 최소한의 투자를 함으로써, 여러분 관계의 질과 여러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공에 관한 사회의 정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승자라는 바보스럽게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사려 깊고 균형 잡힌 정의로 말입니다.” 일·삶의 균형을 좀 더 분석하려면 돈이란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돈은 일의 대가 이면서, 삶을 위한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가진 돈의 액수에 따라 일해야 할 시간과 여가 시간의 분배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결국 일-돈-시간의 균형이라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인생의 시간(life time)을 보내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번다. 한편 시간이 있어야, 일도 하고 돈도 쓴다. 일은 돈을 구하는 생계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의미가 있으며, 자기 삶을 실현하는 의미도 있다. 일반적으로, 돈만으로도, 시간만으로도 삶은 온전하지 않다. 세 가지를 모두 적절히 갖추어야 한다. 균형이 필요하다. 그 비율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양도 중요하지만, 일과 돈과 시간의 질

이 높아야 한다. 개인이엔 삶을 보는 태도의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의 문제가 된다. 위계적 지위를 누리고 과시하려는 문화에 젖어서는 균형을 고려하기 쉽지 않다. 일-돈-시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자세라면,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일하고 배우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자제가 확산된다면,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나누는 문화로 나타날 것이다.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어떠한가?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다. 일과 돈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다시 말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현재의 노동자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신분 상승 투쟁과 같은 방식보다는 공정한 룰과 공정한 보상 체계(임금 체계)가 해법이다. 일-돈-시간의 질이 향상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비 수요가 확대되어, 경제 성장 내지 경제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새해를 맞아 결심해 본다. 올해는 나도 일-돈-시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겠다. 독자 여러분에게도 기원한다. 새해에 소중한 일과 돈과 시간이 함께하기를!

교단에서



김 진 구
우산중학교 교감

올해는 간지로 무술년 개띠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한 연도의 띠가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아마도 58년 개띠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잔치하는 분들이 드물지만 이들이 금년 회갑이다. 87년 6월 항쟁 때에 은 퇴근 후 젊은 네티어부대로 이름을 날렸고, 10년 후 외환 위기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자 사오정의 선두 희생양이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50대에 다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 한 번 휘청거리다가 ‘나는 자연인이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공원 근처 점심 배식이 500원 동전을 들고 줄을 서기도 한다. 해방이 되고 전란을 겪은 후 나라가 조금씩 평정을 되찾아 갈 시기인 1955년부터 ‘제발 좀 그만 낱자’고 산어제한 정책

개띠

을 시작한 1963년까지 출생한 800만 베이비의 대표가 58년 개띠다. 당시 한 학급 학생이 70~80명씩 되었으니 지금 군 단위 초등학교 몇 개 학교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10년 주기로 파란 많은 현대사의 신맛을 본 세대여서 그런지 결혼도 유별나다. 강습 때나 무슨 연수, 취미 생활 모임에서도 가장 먼저 ‘모여라’를 외치며 끈끈한 동아리를 만들곤 한다. 58년 개띠를 주제로 한 시집도 몇 권 있고, 은희경의 ‘마이네이크’를 비롯한 소설도 상당하다. 특히 58년 개띠와 우리나라 현대 교육사는 꼭 변곡점에서 마주했다. 1969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추진된 중학교 무급 입학 제도는 이들이 진학하는 197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3년 후 고입을 앞둔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작되었다. 금년 개띠 해에도 교육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자유 학년제가 전면 실시되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신입생 선발제도가 개편되고 문·이과 구분없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배운다. 절대평가 확대 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수능 개편안이 2018년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지만 학교는 수업 중이다. 예전에는 대체로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에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음해 1월로 넘어가 방학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었다. 2월 중 1~2주 등교하여 종업식과 졸업식을 마치고 다시 학년 말 방학이라 이름하여 쉬었다가 새 학년을 맞이한다. 학교는 3월이 새해인 셈이다. 우리 학교는 연초에 계획한 학사 일정을 변경해서 금년부터 1월 중 연이어 종업식과 졸업식을 모두 마치고 겨울방학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2주 정도는 더 등교해야한다. 대대적인 시설 교체 공사로 인해 학기 중에 학사 일정을 바꾸게 되었고, 2월에는 등교 없이 오직 새 학년 준비에만 남은 일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침 새해부터 시행을 권고하는 학사 일정도 1월에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한 달은 새 학년 교육 과정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며, 교원 인사도 조기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2018학년도부터 초·중·고 졸업식은 대체로 12월 말이나 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육계의 상당한 변화이다. 그리고 누구나 학창 시절에 경험했고, 학부모가 되어서도 느끼는 학년 말의 파장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

한 방안도 나왔다. 중·1·2학년과 고·1·2학년의 학기말 지필 고사가 방학 선언 이전 10일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고, 고3학년은 여름 방학을 줄이거나 8월 등교 기간을 수업 일수에 산입하여 수능 이후의 학비 시간 논란을 해소할 수도 있을 듯했다. 매년 빈 교실이 늘어간다. 학생이 없는 교실은 차갑고 쓸쓸하다. 학교라는 공간에 모여 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지금의 교육 제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구 급속의 세대가 인구 절벽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다. 거시적인 해안으로 교육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새해 아침을 정재봉 시인의 ‘첫 마음’으로 맞이한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 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중략)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낯설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無等鼓

나주 금성관 안의 서쪽 담장 주변에는 많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 가운데 앞쪽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사마교비’다. 높이 1m, 너비 37.5cm로, 바로 옆에 있는 선정비의 절반 크기다. 사마교는 한자로 사마 ‘사(颯)’에 말 ‘마(馬)’, 다시 ‘교(橋)’자를 쓴다. 조선 효종 때 세워진 비석에는 고려 8대 왕인 현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현종이 왕위에 오른 1010년 음력 11월에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 개경으로 쳐들어왔다. 현종은 남쪽으로 몽진(蒙進)해 이듬해 정월 13일부터 10여 일을

음식, 풍토 등 다양할 것이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는 전라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마다 어김없이 인용되는 문구다. 국난(國難)을 맞을 때마다 가까이 민초들이 일어났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풍토 속에서 문화 예술을 꽃피웠다. 풍부한 물산 덕분에 음식 또한 다른 맛을 자랑한다. 전라도가 ‘의향(義鄕)·예향(藝鄕)·미향(味鄕)’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새해는 전라도 정도(庭道) 1000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이다. 새해 첫날, 윤장현 광주 시장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

새 천년 전라도

나주에서 머물렀다. 이때 말 네 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나주읍성 안의 다리 를 건넜다고 한다. 뒷날, 주민들은 본래 서대동 25~2번지에 있었던 이 다리를 ‘사마교’ 또는 ‘사매기’라고 불렀다. 현종은 7년 후인 1018년에 중앙 집권적 기틀을 다지고 대대적으로 지방 제도를 개편하면서 ‘해양도’(전남 일원)와 ‘강남도’(전북 일원)를 합쳐 ‘전라도’로 명명했다.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딴 작명이다. 1000년 동안 전라도를 ‘전라도답게’ 한 것은 무엇일까? 정신과 문화 예술,

대행,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천년맞이 타초식을 가졌다. 3개 시·도 는 ‘전라도, 천년을 품다 새 천년을 날다’를 슬로건으로 공동 선선했다. 올해는 ‘전라도 방문의 해’이기도 하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전라도의 맛과 멋과 흥을 만끽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또한 지역감정과 지역 차별 등 과거의 악습을 없애고 ‘새로운 천년’을 향해 도약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기고

광주·전남 상생 과제로 풀어진 ‘한국학 호남진흥원’



류 영 준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지난 2007년부터 민간에서 추진돼 오다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자하여 (재)한국학 호남진흥원을 10년 만에 설립하게 되었다. 호남지역 한국학 진흥을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호남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풀어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는 민간의 정책 제안이 지방정부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으로 귀결된 사례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복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하고 협력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법인 설립당기를 마치고 원장 채용까지 마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출범식만을 앞두고 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의 급선무는 호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록 문화 유산의 수집·분류·연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으로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은 왕실과 수도권에 전승되는 한국학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가치 연구, 자료 제공 등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전 세계 연구 기관에 한국학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995년 경북 안동에 설립된 ‘국학진흥원’은 주로 영남권에서 수집한 자료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며 수집·보존·연구·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학 연구 기관이 그동안 호남 지역에는 없었다. 호남이 빠진 한국학은 온전한 한국학이 아니라는 주장에 따라 한국학 중앙연구원 호남 분원을 설립하지는 시도는 있었으나 무위에 그쳤다. 호남권의 연구기관으로는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조선대 고전연구원,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연구기관마다 제한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중심

으로 하는데 따르는 한계 때문에 성과를 집적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며 행정 기관까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허브 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단순한 연구 기관을 넘어 보존에서 활용까지 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 호남지역 한국학 성과를 나누고 지역민의 공감을 도대대 민간과 행정의 포괄적 연대를 이끄는 호남지역 한국학 진흥 허브 기관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학 진흥 기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절기차게 이어졌고 민간 영역에서는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과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준비위원회까지 조직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2014년 광주·전남 상생 과제로 채택해 설립추진단을 꾸려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시와 도는 일단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는 2021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수장고·연구동·행정동을 갖춘 한국학 호남진흥원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도는 운영 및 사업 추진비로 올해부

터 10억원씩 5년 동안 100억여 원을 출자한다. 올해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전북도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이렇듯 양 시·도가 행정적 경계가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는 상생의 협력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 부처의 지방 출자·출연 기관 심의 통과 이후 일사불란하게 법인 설립 추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법인 설립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응원해 준 민간 부분의 노고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상생의 정신 바탕에는 호남 지역민의 동질성이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호남 지역 한국학을 과거에 대한 연구로 편협하게 볼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 가는 우리 자신을 학문적으로 정돈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 미래를 창대하게 열어가 수 있는 뿌리 학문이라고 인식함이 바람직하다. 설립 과정에서 민간과 행정의 각 주체들이 보여준 상생 협력의 자세를 조직 운영 과정에서 견지한다면 호남의 미래를 위해 열리는 보물 창고기 바로 (재)한국학 호남진흥원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새해 건강을 위해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급격한 산업발전 속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현대인의 화두는 바로 건강이다. 새해를 맞으며 제각각 다이어트 등의 계획을 세우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나거나 작심삼일로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무리한 다이어트나 이루지 못할 계획보다는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18년에는 계절별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병에 맞춰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좋다. 먼저 일교차가 심한 봄철에는 기존 심혈관 질환자나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은 만성 질환자는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에는 일사병과 열사병 그리고 에어컨으로 인해 발생하는 냉방병, 불결한 위생 관리로 인한 식중독 등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다양하다. 한방에서 더위를 물리치는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생맥산과 제호탕이 있다. 먼저 생맥산은 인삼, 맥문동, 오미자 등

세 가지 약재를 달여 만든 처방으로, 이름에서부터 여름철 약해진 맥을 힘차게 뛰게 해줄 것만 같은 느낌이 물론 풍긴다. 제호탕은 과거 임금이 단옷날 신하들에게 건강한 여름을 나라고 하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더위와 갈증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처방이다. 벌초나 성묘를 다니는 가을철에는 3대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알려진 쓰쯔가무시병, 랩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신증후군 출혈열) 등이 있다. 성묘나 논, 홍수 지역 등에 다녀온 뒤 이런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특히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온도 변화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장병, 과음 등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순환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김지용·청영한방병원장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